

#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2] ‘에코 투어리즘’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2025 시리즈기획

####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 [2] ‘에코 투어리즘’이다
-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 [5] 마을공동체의 답은 돌봄 민주주의다
- [6] 이주민 돌봄이 다문화 사회를 이룬다
- [7] 지역 애착’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 귀촌, 귀향을 위하여
-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아
-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의 리빙랩이다
- [10] 풀뿌리주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한국과 동아시아가 마주한 과제

이번 호에서는 ‘에코 투어리즘<sup>eco-tourism</sup>’ 사례를 통해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고자 한다. 그들이 어떻게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주목하며 지역 회복력을 제고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젓줄인 한강을 따라 강을 가꾸고 즐기는 주민들의 공동체 가꾸기를 이끌고 있는 한강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이 흥미롭다. 또한 에코 투어리즘과 결합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가초<sup>上勝町</sup>의 ‘제로웨이스트<sup>Zero-Waste</sup>’ 실천 활동이 유익하다.

한강 사회적협동조합 조은미 이사장과 가미가초 출신으로 INOW 공동대표인 테루미 아주마<sup>東輝実</sup>가 풀뿌리 세계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미시와 거시를 능동적으로 매개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물론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핵심 동기는 가미가초 마을 주민들의 생태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또한 한강의 생태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강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주민의 애착 혹은 애정<sup>affection</sup>이 토대가 된다. 이는 생태환경을 자연히 즐기는 일방향적 투어리즘이 아니다. 산과 강을 사랑하고 가꾸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서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는 쌍방향 돌봄을 체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적 자원으로서 소통의 정치<sup>talking politics</sup>, 즉 접촉능력<sup>hapticality</sup>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신뢰는 타자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타자를 바라보면 알고 싶

고 소통하게 되고 소통은 직접 접촉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속되면 이해 수준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상호 신뢰의 디딤돌이 마련된다. 이에 우리는 에코 투어리즘과 지역공동체 회복 사이의 연계성 속에서 사회운동론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이론적 자원을 발견하였다. 과거 간과해 온 감정<sup>emotion</sup>, 열정<sup>passion</sup>, 애정<sup>affection</sup>, 즐거움<sup>fun</sup> 등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 초국적 자본가계급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습격으로부터 희망은 풀뿌리 세계시민!

풀뿌리 세계시민의 특성 중 하나는 지역 애착 혹은 애정<sup>affection</sup>이고 소속감<sup>belonging</sup>이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구체적 장소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전제한다. 대조적으로 초국적 자본가계급<sup>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sup>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적고, 소속감이 없다. 그들은 국가 경계를 쉽게 넘나들면서 누구에게나 편하게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과 소통은 풀뿌리 세계시민이 유지하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와 차원이 다르다.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시장 중심의 개방과 경쟁이며, 삶의 방식은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

반면에 풀뿌리 세계시민이 지향하는 가치는 소통과 연대이며 삶의 방식은 민주주의적 세계화이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전지구적 연계 속에서 지역이라는 바탕 위에서 능동적 매개자 역할을 강조한다. 이처럼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구체적 장소의 역사적 맥락 아래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가 없으면 능동적 매개는 불가능한 것이다.

풀뿌리 세계시민의 또 다른 특성은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 습격에 대해 의연하다는 것이다. AI와 인터넷 혁명으로 우리의 삶이 모두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빨려들고 있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지배받는 '정보지배체제<sup>information regime</sup>'에 예속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웃은 멀어지고 단골은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이 우리 삶에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하루의 일과가 휴대폰의 뉴스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마감하는 것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보지배체제에 들어가 있지만 스스로 취사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을 통해 사라지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디지털은 결코 우리가 바깥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타자와의 직접적



※ 출처: 조은미 한강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대면도 꺼리게 한다. 이른바 타자와의 접촉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바라보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협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물론 디지털 공간을 무시하고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의존하면 마주하게 될 위험을 늘 경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한강조합)이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를 확장하는 방식이 궁극적이다. 2018년 창립 이후 약 7년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이 920명에 이르고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2만명에 이를 정도로 강을 가꾸고 즐기는 사람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마도 조합원 증대라는 조직성장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을 조합원으로 동원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강조합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단순 참여자에 대해 열린 마음의 자세로 접근하였다. 이들은 모두 강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늘려 조직을 키우고 세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이 목표라면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유용할 수 있다.

강의 생태와 문화에 관심을 두고 강을 가꾸고 즐기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강조합은 아래로부터의 참여 원칙을 강조한다. 후원자, 조합원 혹은 자원봉사자가 소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며 자연을 돌보는 일을 통해 접촉과 관계 맺기 능력을 키운다. 한강의 일부 혹은 연결된 셋강, 중랑천, 미호강의 오프라인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관계 맺기 장소인 셈이다. 이런 면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유혹과 공격을 잘 견제하고 있다.

사실 ODA 정책에서 ‘빈곤 포르노’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지역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다수의 관광 정책은 대부분이 개발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관광개발업자의 배를 채우는 위장환경주의<sup>green washing</sup> 전략일 뿐이다. 그러나 에코 투어리즘 사례는 지세화<sup>地世化</sup>, localization<sup>localization</sup>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 이는 생물종다양성을 지키며 생태 가치가 높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자연환경을 맛보고 생태계를 배우고 보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생태복지를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풀뿌리 세계시민의 특징이다. “사랑은 사람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키고 끊임없는 혁신을 꾀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공감한



셋강 생태공원. 사진=공석기



한강사회적협동조합. 셋강생태공원서 어르신들과함께. 사진=조은미

다. 지역에 대한 애착과 애정의 마음이 주민들로 하여금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이 '체득된 지식'<sup>physically embedded knowledge</sup>이 그들의 삶의 원칙과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역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풀뿌리 세계시민이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한강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일본 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 가미가츠 사례를 통해 풀뿌리 세계시민이 어떻게 가벼운 공동체와 에코 투어리즘과 결합하는가를 살펴보자.

## 강을 사랑하며 즐기는 사람들의 관계 맺기 장소

### '한강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사회적협동조합(한강조합)은 '시민들이 강을 가까이하고 강에서 놀며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동식물과 어울려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강으로 바꿀 수 없을까'라는 바람으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강과 하천을 가꾸기 위해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 중랑천, 미호강 등지에서 시민참여 공유지 관리모형을 실험하고 있다. 또한 강 문화를 통하여 강을 가까이하고 강에서 좋은 추억을 만듦으로써 강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가벼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한강조합은 "강 생태를 가꾸고 강 문화를 일궈서 세상을 풍요롭게 그리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강조합은 한강이라는 풀뿌리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전지구적 생태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강조합이

2020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 운영 관리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한 생태관리를 넘어 강이라는 구체적 장소에서 생태가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스스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강을 가꾸고 사랑하는 소모임이 형성될 수 있는 매개자요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자연을 사랑하고 한강과의 애착 관계를 통해 중산층만이 누리는 웰빙<sup>well-being</sup> 프로그램에 머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동일한 생태복지를 누리고 가꿀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생태복지 즉 웰빙은 중산층만의 몫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도 생태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동시에 한강조합은 위탁사업을 통해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sup>decent jobs</sup>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지역 복지관, 노인회, 50+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 노인,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위탁사업을 창의적으로 바꾸는 일종의 사회혁신 과정이기도 하다. 환경보호 활동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판단해서 한강조합이 활동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이 활동할 때도 있다. 대한노인회 소속 12명의 어르신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50플러스센터에서 15~20명을 파견하였는데 이것도 시니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몇 분은 활동가가 되기도 하고 몇 분은 열심히 해서 숲 해설사가 되기도 한다. 정부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모범적인 부가 사업<sup>spin-off program</sup>인 셈이다.

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제빵사, 바리스타 교육만 받아야 하는가? 조은미 이사장은 한강은 셋강 생태공원 관리 위탁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의적으로 제공한 사례임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같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한강과 연결시키자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는 외로움의 습격이 더욱 강해지고, 소외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우울증, 은둔형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한강조합은 이런 위기를 보면서 셋강이라는 장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바꾸고 그것을 누리게 하자고 생각했다. 셋강에서 생태복지를 구현하자는 것이 조합활동의 목표가 되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셋강에는 장애인, 은둔형 청년,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통해 그들도 자연을 돌보고 그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 팬데믹이 초래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조합은 향후 외국인의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일본이나 해외 사례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 가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강남, 한옥집, 맛집 투어보다 한강 생태를 알리는 것이 더욱 의미도 있고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외국인들도 한강에서 ‘한강라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강이라는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보전하는 데 관심을 일깨울

수 있다.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즉, 서울 메가시티 안에서도 셋강과 같은 생태공원이 자연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코 투어리즘은 단순 관광 수익 창출이 아니라 생태환경 교육으로서 친환경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다시 만나 연대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과정인 셈이다.

셋강이라는 구체적 장소에서 주민들은 과거 거의 마주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소통하고 친밀해지는 기회를 갖는다. 창의성, 혁신성, 포용성, 지역 애착이라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한강 사회적협동조합은 제대로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강조합은 셋강 생태공원을 관리 운영자로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일련의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생태 가치를 체득하면서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원봉사로서 혹은 일자리로서 생태복지 증대에 깊게 관여하는 귀한 경험을 갖게 된다.

이제 지역 주민은 자연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스스로와 소통하는 관계 맺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 관계는 결코 두텁거나 무겁거나 찢하지 않다. 언제나 들어가고 나갈 수 있고 수평적이고 가벼운 관계이다.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강조합의 지역공동체 회



한강사회적협동조합. 셋강생태공원에서 사회약자들과 함께. 사진=조은미

복 실험이 작동하는 것이다.

또한 한강조합은 중간지원조직 역할도 담당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적경제의 기형적 모습 중의 하나는 위로부터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고 정부 주도로 추격 전략의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한강조합은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즐기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까지 확장하고 있다.

한강조합이 강과 하천을 가꾸는 지역 단체를 위해 왜 귀찮게 컨설팅까지 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지역 활동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강조합에는 한강 사랑, 셋강 사랑, 생태계 사랑 그 애착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는 풀뿌리 세계시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생태계를 사랑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태복지를 통한 '에코투어리즘'의 가치를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노하우의 나눔 과정은 비록 풀뿌리 주민이지만 전지구적 생태위기, 기후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시민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공유하는 돌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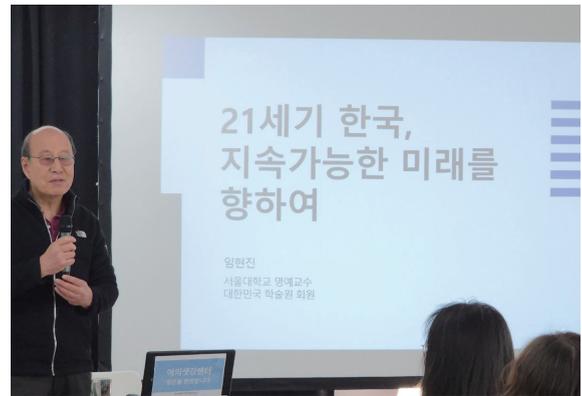


조은미 이사장과 필자들. 사진=공석기

## 친환경 투어리즘과 가벼운 공동체의 연결고리로서 풀뿌리 세계시민, 조은미 이사장!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한 사람의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보자. 저자들이 조은미 이사장을 처음 만난 곳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국제연대 활동에서이다. 당시 그녀는 환경운동연합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로, 또한 활동가에 준하는 열성적인 회원으로 환경연합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문학의 숲 소모임의 리더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소위 '부캐' Character 활동도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다. 제주도가 고향이고 어린 시절을 자연과 함께 지냈고 작은 마을공동체 속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풍성한 관계성 안에서 성장한 것이 후일에 지역 공동체를 가꾸는데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짐작된다.

그녀의 경력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원봉사자로 환경련을 만나서 생태복지에 관한 관심의 싹을 틔웠고 국경없는의사회에서 국제적 감각과 조직 운영에 대한 훈련이 되었고 초국적 만남과 네트워킹의 폭도 확장되었다. 이런 전지구적 사고가 다시 지역으로 이어진 것은 '한강



임현진교수. 한강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강연 모습. 사진=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를 통해서이다. 셋강과 문학의 숲 활동은 자연, 문학, 생태가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생태 교육과 복지가 투어리즘을 만난 것이고 이것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한강이라는 구체적 장소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한강을 중심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타자의 얘기를 경청하게 되었고 그들과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편이 기꺼이 되어주는 언니, 누나, 이모, 엄마로서 그 역할의 폭을 확장하였다. 또한 최근 개인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돌봄과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녀가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의 목소리 경청하고 소통하는 현대의 자세가 결국 지역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연대로 이어진다. 안팎의 불안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다시 풀뿌리 장소에서 타자와의 가벼운 만남을 통한 관계 맺기에 나서야 한다는 경종으로 다가온다. 결국 우리 사

회의 분절과 혐오는 타자를 바라보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오직 자기주장만이 맞다는 독단주의요 분리주의일 뿐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결핍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회복인 것이다.

그녀에게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의 삶을 상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를 질문했다. 그녀는 여전히 지역에서 생태복지 관련 활동을 할 것이고 그 장소가 아마도 제주도 고향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한다. 분명한 것은 비록 장소는 바뀌지만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하며 멋지고 재밌는 마을을 가꾸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소망에 부러움이 절로 나온다.

요컨대 한강조합 조은미 이사장의 삶은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 모범 사례이다.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능동적 매개자로서 한강이라는 구체적 장소에서 생태복지를 누구나 가꾸고 즐길 수 있는 관계 맺기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타자를 리더로서 이끌기보다는 함께 생태적 가치를 배우고 그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호 격려한다.

또한 투어리즘이 문화 예술과 결합되고 한강이라는 곳



가미가츠의 봄여름가을겨울 모습. 사진=공석기

에서 누구나 멋지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별히 지역 주민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연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갖게 되며, 함께 활동하며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비록 느슨하지만 가벼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자라난다.

### 가미가츠 '제로웨이스트' 실천 2세대, 플뿌리 세계시민 테루미 아주마 대표!

가미가츠초<sup>上勝町</sup>는 2024년 11월 현재, 인구 1352명, 고령화율이 50%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절반 이상인 초고령화 마을이다. 마을 풍경 사진처럼 산에 작은 부락이 듬성듬성 있고 이끼가 군생하는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계단식 논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도 유명한 마을이다.

이렇게 외진 두메산골임에도 불구하고 가미가츠는 두 가지로 유명하다. 하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20년 넘게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나뭇잎 사업, 이로도리<sup>いろどり</sup>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일본인은 식사를 할 때 접시 혹은 음식 위에 잎 장식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가미가츠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로도리 제공 마을이다.



가미가츠 제로웨이스트센터. 사진=공석기

특히 2003년 가미가츠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선언한 마을이다.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20년간 마을 주민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했고 2023년에 81%에 가까운 재활용률을 보여주었다. 일본 전역의 재활용률 평균이 20%에 머문 것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놀라운 실적이다. 현재 마을 입구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 센터에는 42개 분류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용 트럭은 마을에서 다니지 않는다.

테루미 아주마<sup>東輝実</sup>는 도쿠시마현에서 가장 작은 마을 가미가츠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녀의 중학생 시절 2003년은 가미가츠 지역 정부가 '제로웨이스트'를 선언한 때이기도 하다. 이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테루미의 어머니, 히토미 아주마<sup>Hitomi Azuma</sup>이다. 그녀는 가미가츠초 공무원으로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담당했고 마을의 폐기물 분리 시스템을 구상하고 2003년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실 그녀는 딸 테루미와 함께 선진국의 제로웨이스트 현장을 사비를 들여서까지 누비면서 선진 사례를 배우려고 노력한 열정적인 공무원이었다.

안타깝게도 히토미씨는 2013년에 갑자기 사망하였지만 이런 부모의 열정과 헌신이 그녀에게 이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녀는 쓰레기 처리를 담당했던 어머니가 독학으로 배워가며 가미가츠의 미래를 생각하는 열정과 사랑에 감동하였다고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곤 한다.

사실 그녀가 가미가츠 마을의 미시적 공간에서 눈을 돌려 거시 차원으로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중학교 3학년 때 환경을 주제로 10일간 오키나와에서 요코하마까지 크루즈 행사(NHK가 후원하는 Future Journey Cruise)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각국에서 온 42명의 청소년(13~15세)이 선상에서 함께 토론하는 경험이었다.

당시 조금씩 환경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영어를 할 줄 몰라 배 안에서 여러 번 울고 좌절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통역의 도움을 받아 가미가츠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아시아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며 자신은 멋진 일을 하며 가미가츠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그것이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이후 테루미는 도쿠시마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효고현<sup>兵庫県</sup>의 간세이가쿠인대학<sup>関西学院大学</sup>의 정책학부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 루마니아 환경 NGO에서 인턴 생활을 하였고 그곳에서 가미가츠 제로웨이스트 방식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루마니아의 쓰레기를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가미가츠 방식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신하고 2012년에 가미가츠 고향으로 돌아온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왜 가미가츠 고향으로 돌아왔는가를 질문할 때마다 테루미는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가미가츠를 너무 사랑하고 나의 삶의 전부를 여기에서 보내고 싶으며 가미가츠에서 즐겁고 풍요한 삶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마을 주민과 함께 누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지역 애정은 어머니가 54에 갑자기 소천해서 서둘러 돌아온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녀에게는 9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도 제로웨이스트를 알고 있으며 그것이 가미가츠의 삶의 일부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제로웨이스트 정신이 할머니에서 시작해 엄마를 거쳐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결코 주입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에서 다양한 만남과 협동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테루미 대표는 2012년 가미가츠로 돌아오자마자 현재의 회사를 설립했다. 2013년에 '오감으로 가미가츠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주제로 카페 'PoleStar'를 오픈하



Polestar 카페에서 지역 음식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테루미 아주마

였으며 2020년에는 제로웨이스트를 토대로 한 가미가츠 숙박 체험형 투어리즘 프로그램 INOW를 공동 창업하였다(<https://inowkamikatsu.com/> 참조). Polestar 카페는 지난 11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였고 특히 팬데믹 동안에는 외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친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즉 투어리즘과 친환경 교육을 결합한 것이다.

최근 제로웨이스트 원칙을 바탕으로 한 투어리즘 사업이 가미가츠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테루미는 이러한 투어리즘이 친환경 생태 보전과 연결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미가츠 지역에 에코 투어리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에 AMU를 설립해 교육과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로컬버리지이션 구현하는

### 풀뿌리 세계시민 조직 INOW

테루미씨가 참여하고 있는 회사, 카페 PoleStar, INOW, 그리고 AMU를 좀 더 살펴보자. 그녀는 주로 세 가지를 하고 있다. 음식점 사업,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연구 활동이다.

카페 폴스타는 오감으로 가미가츠를 느끼고 맛볼 수 있

는 전시장이며 만남의 장소이다. 가능한 가미가츠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식기에는 가미가츠의 명물 이로도리가 사계절에 맞추어 장식되어 제공되고 숍 인 숍<sup>Shop in Shop</sup>으로 가미가츠에서 재활용을 통해 만든 수공예품을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한다. 사람들은 폴스타 카페를 방문하면서 가미가츠의 제로웨이즈 경험과 이로도리의 에프타이저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INOW 마을 체류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캐나다 출신 매니저와 벨기에에서 온 여행자가 공동 사업자로 운영한다. 가미가츠 생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해서 이곳 마을에서 거주하기로 한 것이며 이후 마을 체류를 통한 친환경 연수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역지로 외국인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 INOW를 유연히 만나게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전형적인 로커벌리제이션 구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4년 1월~6월 사이에 INOW가 맞이한 해외 게스트는 15개국에서 94명이었다. 특히 태국 기업그룹, SDGs 연구자 그룹, 대만 학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해외 방문자가 그들이다. 이들과의 관계맺기는 단순히 한번 방문으로 그치지 않고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결로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2024년 5월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인구개발회의'



INOW 활동가들. 사진=테루미 아즈마

에 테루미씨가 '노 원 레프트 비하인드<sup>No One Left Behind</sup>' 세션에 참석하여 가미가츠 마을의 고령자 여성에 대한 돌봄사례를 발표하였다. 제로웨이스트로 시작한 실천 프로그램이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근황을 묻고 답하는 상황에서 혹 급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돌보는 것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테루미 씨는 가벼운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치"라는 용어가 주목 받고 있다.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규칙을 만들고 실행하는 자치 조직, 지역, 시스템을 의미하며 기존의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쉽게 넘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리빙랩 개념도 잠시 유행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 가미가츠에서도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근에는 지역의 경계를 쉽게 들고 날 수 있는 유연하고도 열린 관계성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의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벼운 공동체<sup>light community</sup>'가 부분적으로 가미가츠에서도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테루미씨는 강조한다.

물론 지역 주민 사이의 관계성이 "너무 가벼워질" 위험이 있음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지만 너무 강한 연결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경향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미가츠는 작은 마을이지만 제로웨이스트 실천 경험을 에코 투어리즘으로 확장하면서 지역 소멸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한 테루미 씨는 가미가츠에서 에코 투어리즘을 지향하며 제로웨이스트를 대대를 이어 실천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로커벌리제이션의 구체적 사례이다. 